

국어 형용사 반의어에 대하여

정 인 수

차 례

- | | |
|----------------|-----------------|
| 1. 머리말 | 3.1 제 I 형 반의어 |
| 2. 반의어의 개념과 검증 | 3.2 제 II 형 반의어 |
| 2.1 반의어의 개념 | 3.3 제 III 형 반의어 |
| 2.2 반의어의 검증 | 3.4 제 IV 형 반의어 |
| 3. 반의어의 양상 | 4. 마무리 |

1. 머리말

의미론은 단어와 단어 사이의 체계적인 관계와 문장과 문장 사이의 체계적인 관계를 특징짓고 설명해 주는 것이다.¹⁾ 그러므로 의미론은 어휘 및 문장의 양 층위에서 연구가 가능하다. 그런데 어휘는 언어의 의미를 전달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므로 어휘의미의 체계적 파악과 기술은 문장의미론에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휘의미의 체계적 파악없이 의미론은 성립할 수 없다. 이러한 어휘의미론은 어휘 사이의 의미관계를 밝힌

* 본고는 정인수(1985) 「국어 반의어 연구」(영남대 석사학위 논문)와 '국어 형용사 반의어에 대해서'란 제목으로 영남어문학회(제 159차)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1) Kempson, Ruth, Semantics (Cambridge, 1977)p.4.

후에 성립된다. 어휘 사이의 의미관계를 밝히는 한 작업이 되는 반의어 연구는 이런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보겠다.

반의어에 대한 연구는 상당한 분량에 달하는데, 대부분 모든 품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는 지금까지의 반의어 연구에서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형용사로 한정하겠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국어사전이나 반의어사전을 통해서 반의어를 조사해 보면 상당히 일관성 없이 등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²⁾ 이는 반의어에 대한 개념의 정립이 분명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 데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2장에서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관점에서 반의어의 개념을 규정해놓고, 거기에 비추어 사전에 등재된 형용사로 이루어진 반의어를 검증한다.

3장에서는 등급성(gradability)과 함의관계를 중심으로 그들의 양상을 살펴보고, 4장에서는 그 때까지의 논의를 요약하여 정리한다.

2. 반의어의 개념과 검증

2.1 반의어의 개념

언어학에서 동의어(synonymy) 같은 다른 의미관계에 관심을 가졌지만, 반의어의 개념을 무시해 왔다.³⁾ 대부분 반의어의 개념이 동의어와 반대라는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는 antonymy란 용어가 만들어진 배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반의어로 번역되는 영어의 antonymy란 단어는 19세기에 의미의 반대, synonymy의 반대로 생각되어진 현상을 기술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⁴⁾고 한다. 이것은 반의어를 동의어의 반대, 즉 의미의 동일성과 극단으로 대립되는 의미의 최대 차이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둘

2) '적색'의 반의어로 '백색', '백색'의 반의어로 '흑색'과 '적색' 그리고 '현재'의 반의어로 '과거'와 '미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3) Adrienne Lehrer and Keith Lehrer, "Antonymy" (Linguistics and Philosophy 5, 1982) p.483

4) Lyons, John, Semantics I(Cambridge, 1977) .p.286.

의 지위 (status)는 아주 다르며, 완전한 동의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나 반의어는 규칙적이고 상당히 정확하게 정의될 수 있다⁵⁾는 것이다.

Akmajian Demers와 Hanish (1974)는 반의어로 되는 표현 (expressions)은 의미의 한 양상 (aspect)을 공유하지만, 의미의 또 다른 양상에서 대립 (opposite) 도는 양립불능 (incompatibility) 이다⁶⁾고 하였다. 그렇지만 양립불능은 반의어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왜냐하면 반의어는 의미적인 면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가진 양립불능인 두 사상 (事象) 사이에 성립되기 때문이다.⁷⁾

심재기 (1982)는 반의어를 형성하는 한 쌍의 단어는 그것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상의 수준에서 하나의 유개념으로 묶이며, 상위개념으로 종차적인 것만을 달리하는 동위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다는 동질성을 전제로 하였는데, 동질성의 한 가지 조건으로 동일 언어사회 내에서 심리적으로 동시연상이 가능한 한 쌍의 단어일 것이 요구된다⁸⁾고 하였다. 이는 언중의 심리적 현실도 반의어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심재기 (1982)는 ‘가다’의 반의어로 ‘오다’가 일반적인 반의어쌍이기는 하지만 ‘가다, 멈추다’ 그리고 ‘가다, 안가다’도 반의쌍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언중의 심리적 현실이란 것은 개인이 처한 주위의 문화적 환경 또는 개인의 언어적 인식 여하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이것을 반의어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⁹⁾

성분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반의어의 개념을 시도한 남기심 (1974)은 두 개의 단어가 모든 자질을 공통적으로 갖고 다만 한 자질만이 상반될 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질 A, B, C, D를 공유하고 문제의 두 단어 중 한 단어가 자질 E를 가진데 대해서, 다른

5) Palmer, F.R. Semantics (Cambridge, 1981). p.94.

6) Akmajian, Demers & Hanish, Linguistics : An introduction to Language and Communication (M.I.T. Press, 1979) p.224.

7) 이승명, 국어 어휘의 의미 구조에 대한 연구 (형설출판사, 1978), p.12.

8) 심재기, 국어어휘론 (점문당, 1982), pp.244-245.

9) 염선도, 국어의미론 (형설출판사, 1987), p.49.

쪽이 자질 E'를 가졌을 경우(즉, $[A, B, C, D, E]_x$ 대 $[A, B, C, D, E']_y$) 그 두 단어는 서로 반대어라 할 수 있다.¹⁰⁾ 반어어에 대한 이러한 성분분석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언중의 심리적 현실을 반의어의 기준으로 삼는 것보다 반의어의 검증에도 유용하다. 그러나 관점이 다양한 공간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들과 주로 정도나 강도가 달라서 그 차이를 특정지워 주는 어떤 절대적인 자질이 없고 상대적인 대조만 있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적용되는 범위가 제한을 받는 문제점이 있다.¹¹⁾ 이에 속하는 반의어에 대해서는 등급성(gradability)과 방향성(directionality)의 분석 방법이 적절하다.¹²⁾

이상에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기준에서 반의어를 규정할 때, 반의어란 서로 양립불능의 관계에 있지만, 이것은 또한 상위개념에 속하는 하위개념들이기 때문에 유사점이 많은 낱말들이다. 따라서 반의어로 되는 두 단어는 하나 이상의 의미 자질이 다르고 나머지의 의미자질을 공유하는 경우, 상위개념에 속하는 양립불능인 하위개념이 둘만 있는 경우, 동일한 관계에 놓이고 방향이 대립되는 경우, 그리고 같은 척도(scale)에서 유사한 정도의 거리와 방향이 대립되는 경우라야 한다.

2.2 반의어의 검증

사전¹³⁾에서 반의어를 조사해 보면, '자라다'의 반의어로 '모자라다'로 등재되어 있고 '남다'의 반의어도 '모자라다'로 등재되어 있다. 또한 '덥다'의 반의어로 '춥다' 외에 '서늘하다', '시원하다', '차다'도 등재되어 있다. 이것은 반의어에 대한 개념의 정립이 분명하게 이루어 지지 않은데에 기인된 것이라 여겨진다.

10) 남기십, 반대어고(국어학2, 1974), p.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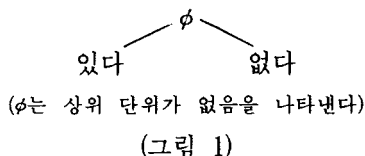
11) Nida, Eugene A. Componential Analysis of Meaning(Mouton Publishers, 1979) pp. 62-63

12) Adrienne Lehrer & Keith Lehrer 전제서, pp.487-488.

13) 본고에서 사전이란 이회승의 국어대사전(민중서림, 1983)과 김광해의 반대말 사전(국학자료원, 1990)을 말한다.

그러면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립한 반의어의 개념에 비추어, 사전에서 뽑은 몇몇의 형용사 반의쌍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을 검증해 보기로 하겠다.

‘있다/없다’는 정도부사에 의한 수식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에 등급성이 없다. 또한 ‘있다/없다’는 존재의 유무, 즉 한 쪽이 자질을 가짐에 비하여 다른 한 쪽은 자질을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질이 달라서 단순히 둘로 양분된 단어쌍이다. 왜냐하면 ‘있다’와 ‘없다’ 외에도 더 이상 존재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있다/없다’는 ‘남자/여자’, ‘동물/식물’ 등과 달리 상위개념에 해당되는 단어를 갖지 못하는 것 같다. ‘있다/없다’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있다/없다’는 동일한 상위개념에 묶여 있어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존재’의 유무라는 대립자질을 가지며 양립불능 관계에 놓인다. 따라서 2.1에서 설정한 반의어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있다/없다’는 반의어로 성립된다고 하겠다.

‘크다/작다’와 ‘길다/짧다’는 위에서 논의한 ‘있다./없다’와 달리, 두 단어가 모두 정도부사에 의한 수식이 허용되기 때문에 그들 자체에 등급성을 가진다. 이런 반의쌍들은 정도가 달라서 그 차이를 특정지워 주는 어떤 절대적인 자질이 없고 상대적인 대조만 있게 된다. 따라서 등급성과 방향성에 의한 분석이 적절할 것이다.

‘크다’와 ‘작다’는 ‘크기’라는 동일한 척도를 가지며, ‘길다’와 ‘짧다’는 ‘길이’라는 동일한 척도를 가진다. 또한 ‘크다’와 ‘작다’ 사이에는 크지도 작지도 않는 중간지역 (midinterval) 이 있으며, ‘길다’와 ‘짧다’ 사이에는 길지도 짧지도 않는 중간지역 (midinterval) 이 있다. 이들을 그림으로 나

타내면 다음과 같다.

.....	작다		중간지역		크다	
(아주작다)		(조금작다)	(기준점)	(조금크다)		(아주크다)

.....	짧다		중간지역		길다	
(아주짧다)		(조금짧다)	(기준점)	(조금길다)		(아주길다)

(그림 2)

(그림2)에서 ‘크다’와 ‘작다’, ‘길다’와 ‘짧다’는 기준점이 되는 중간지역 (midinterval)에서 유사한 거리에 있으며 방향이 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각각 ‘크기’와 ‘길이’라는 동일한 척도에 속하기 때문에 반의어로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반대말사전(김광해 : 1990)에서는 ‘따뜻하다’의 반의어로 ‘춥다’와 ‘쌀쌀하다’, ‘쌀쌀하다’의 반의어로 ‘따뜻하다’, ‘춥다’의 반의어로 ‘덥다’ 그리고 ‘덥다’의 반의어로 ‘춥다’와 ‘쌀쌀하다’로 등재되어 있고, ‘밝다’의 반의어로 ‘어둡다’, ‘어둡어둡하다’, 그리고 ‘캄캄하다’ ‘어둡다’의 반의어로 ‘밝다’와 ‘환하다’로 등재되어 있으며 ‘자라다’의 반의어로 ‘모자라다’ ‘모자라다’의 반의어로 ‘자라다’와 ‘남다’, ‘남다’의 반의어로 ‘모자라다’로 일관성 없이 등재되어 있다. 그러면 이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반의어로 성립되고, 어떤 것들이 성립될 수 없는 지를 살펴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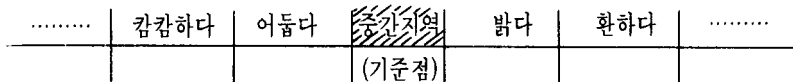
‘따뜻하다’, ‘덥다’, ‘춥다’, 그리고 ‘쌀쌀하다’는 모두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 자체에 등급을 매길 수 있으며 ‘온도’라는 동일한 척도(scale)를 가진다. 그리고 ‘덥다’는 ‘따뜻하다’보다 온도가 높고, ‘춥다’는 ‘쌀쌀하다’보다 온도가 낮다. 또한 ‘따뜻하다’와 ‘쌀쌀하다’ 사이에는 따뜻하지도 쌀쌀하지도 않은 중간지역이 설정될 수 있는데, 이들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춥다	쌀쌀하다	중간지역	따뜻하다	덥다	
			(기준점)			

(그림 3)

(그림3)에서 볼 수 있듯이, ‘춡다’와 방향이 대립되면서, 기준점이 되는 중간지역에서 그것과 유사한 거리에 놓이는 것은 ‘덥다’이고 ‘썰썰하다’와 방향이 대립되면서, 기준점이 되는 중간지역에서 그것과 유사한 거리에 놓이는 것은 ‘따뜻하다’이다. 그러므로 ‘춡다’의 반의어는 ‘덥다’만 되고, ‘썰썰하다’의 반의어는 ‘따뜻하다’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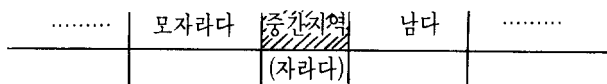
‘밝다’, ‘어둡다’, ‘환하다’, 그리고 ‘캄캄하다’는 ‘밝기’라는 동일한 척도(scale)를 가지며, 또한 정도부사의 수식을 허용하기 때문에 그들 자체에 등급을 매길 수 있다. 그리고 ‘환하다’는 ‘밝다’보다 ‘밝기’의 정도가 높고, ‘밝다’는 ‘어둡다’보다 ‘밝기’의 정도가 높으며, ‘어둡다’는 ‘캄캄하다’보다 ‘밝기’의 정도가 높다. 또한 ‘밝다’와 ‘어둡다’ 사이에는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중간지역이 설정될 수 있다. 이들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그림4)를 통해서 ‘밝다’와 ‘어둡다’는 기준점이 되는 중간지역으로부터 방향이 대립되고 유사한 거리를 가진다. 또한 ‘환하다’와 ‘캄캄하다’도 중간지역에서 방향이 대립되고 유사한 거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밝다’의 반의어로 ‘어둡다’만이 가능하고 ‘환하다’의 반의어로 ‘캄캄하다’만이 가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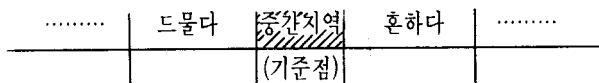
‘바라다’, ‘모자라다’, 그리고 ‘남다’는 어떤 표준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 ‘남다’, ‘자라다’, ‘모자라다’의 순서가 된다. 그리고 ‘모자라다’와 ‘남다’는 등급을 매길 수 있으나 ‘자라다’는 등급을 매길 수 없다. 왜냐하면 ‘아주 자라다’, ‘조금 자라다’ 등의 표현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중간지역을 설정할 수 있는데, ‘자라다’는 그 지역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이들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



(그림 5)

(그림5)를 통해서, 기준점이 되는 중간지역에서 방향이 대립되고 유사한 거리에 있는 ‘모자라다’와 ‘남다’가 반의어로 성립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전에서는 ‘혼하다’의 반의어로 ‘드물다’와 ‘혼치않다’를 동시에 등재하고 있다. 여기서 ‘혼치않다’는 ‘혼하다’의 부정어이다. 그리고 ‘혼하다’는 ‘드물다’보다 무엇이 많은 정도를 나타내며, 이들은 정도부사의 수식을 허용하므로 그들 자체에 등급을 매길 수 있다. 또한 ‘혼하다’와 ‘드물다’ 사이에는 혼치도 드물지도 않은 중간지역이 설정될 수 있으며, ‘혼치않다’는 ‘혼하다’의 부정(negation)이기 때문에 ‘혼하다’의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 위치하게 된다. 이들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혼치않다

(그림 6)

(그림6)을 통해서, 중간지역에서 방향이 대립되고 그것에서 유사한 거리에 있는 ‘혼치않다’를 제외하고 ‘드물다’와 ‘혼하다’만이 반의어로 성립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부정어가 제시어의 반의어로 성립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¹⁴⁾

이상에서 사전에 반의어로 등재된 몇몇 형용사 단어쌍을 2.1에서 규정

14) 부정어가 제시어의 반의어로 성립될 수 있는 예로써 ‘완전하다/불완전하다’, ‘정확하다/부정확하다’, ‘성실하다/불성실하다’ 등을 들 수 있다.

한 반의어의 개념에 비추어 이들이 반의어로 성립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중간지역 (midinterral)에 속하는 단어를 반의어로 잘못 다룬 경우, 중간지역에서 유사한 거리에 있지 않는 두 단어를 반의어로 잘못 다룬 경우, 제시어의 부정 (negation)을 반의어로 잘못 다룬 경우들이 있었다.

3. 반의어의 양상

반의어에는 여러 다른 종류가 있으며 그 종류들은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¹⁵⁾ 이는 반의어들이 그들의 의미적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인수(1985)는 Kempson(1977)과 Palmer(1981)의 구분에 근거하여 이원 반의어, 관계 반의어, 등급 반의어의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거기서 형용사로 이루어진 반의쌍을 이원 반의어와 등급 반의어 속에 포함시켜 다루었다. 그리고 임지룡(1989)은 J. Lyons(1968, 1977)와 D.A. Cruse(1980, 1986)의 논의를 참고하여 상보 대립어, 반의 대립어, 정도상보 대립어, 방향 대립어의 네 가지로 나누었는데, 형용사로 이루어진 반의어를 반의 대립어와 정도상보 대립어에 포함시켜 다루었다. 그러나 정인수(1985)의 이원 반의어나 등급 반의어, 그리고 임지룡(1989)의 반의 대립어나 정도상보 대립어에도 속하지 않는 유형이 있으므로, 형용사로 이루어진 반의어들은 더욱 세분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등급성 (gradability)과 중간지역의 존재, 그리고 긍정과 부정의 함의관계를 기준으로 제Ⅰ형 반의어, 제Ⅱ형 반의어, 제Ⅲ형 반의어, 제Ⅳ형 반의어의 네 가지로 나누어, 이들의 의미적 특성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15) Palmer, F.R. (1981), 전제서, p.94.

16) 본고의 제Ⅰ형 반의어는 정인수(1985)의 이원반의어와 임지룡(1989)의 상보대립어에 해당된다.

3. 1. 제 I 형 반의어¹⁶⁾

제 I 형 반의어는 동일한 상위개념에 묶일 수 있는 양립불능(incompatibility)인 단어들의 집합에 관계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 쌍으로 된 집합의 요소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쌍으로 된 단어 사이에 유지되는 관계이다. Lyons(1971)는 이를 두 단어(two-term) 집합에 유지되는 양립불능의 특별한 경우라고 하였다.¹⁷⁾ 따라서 이런 관계를 이루는 반의어는 어떤 개념적 영역을 상호 배타적인 두 구역으로 철저히 양분하므로 반의어의 유형 가운데 개념상 가장 단순하다고 할 수 있다.¹⁸⁾ 임지룡(1989)은 여기에 속하는 반의어를 상보 대립어라 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보기로는 명사류와 동사류를 들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흔하지는 않지만 형용사 중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있는데, '유한하다/무한하다', '있다/없다' 등이 그것이다.

그러면 '유한하다/무한하다', '있다/없다'¹⁹⁾를 통해서 그들의 의미적 특성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 (1) ㄱ* 매우 유한하다.
ㄴ* 더 유한하다.
- (2) ㄱ* 매우 무한하다.
ㄴ* 더 무한하다
- (3) ㄱ* 매우 있다.
ㄴ* 더 있다
- (4) ㄱ* 매우 없다.
ㄴ* 더 없다
- (5) * A는 B보다 매우(더) 유한하다.
- (6) * A는 B보다 매우(더) 무한하다.

17) Lyons, John,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Cambridge,1971) p.461.

18) 임지룡(1989). 전제서 p.26

19) '있다/없다'는 특수한 조건에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조건, 즉 유무(有無)라는 본래의 사용법에 한정한다.

(7) * 나는 너보다 그 문제를 풀 수 매우(더) 있다.

(8) * 나는 너보다 그 문제를 풀 수 매우(더) 없다.

형용사는 피수식어의 의미를 등급화해 주는 정도부사의 수식에 의해서 등급화될 수 있다.²⁰⁾ 이는 형용사의 의미에 존재하고 있는 「등급성」(gradability)을 유형화하여 표현된 것이 정도부사라고 할 수 있다.²¹⁾ 그러므로 어떤 형용사가 등급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정도부사의 수식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느냐에 의해서 검증할 수 있다.

위의 (1)~(4)는 ‘유한하다’, ‘무한하다’, ‘있다’, ‘없다’에 보통의 정도부사로 수식한 경우이다. 그런데 이들은 어휘적으로 성립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유한하다’, ‘무한하다’, ‘있다’, ‘없다’는 그 자체에 등급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5)~(8)과 같은 비교표현은 사용될 수 없다.

(9) * A는 유한하지도 무한하지도 않다.

(10) * 이것은 있지도 없지도 않다.

(11) A는 유한하다.

(12) A는 유한하지 않다.

(13) A는 무한하다.

(14) A는 무한하지 않다.

(15) 여기 집이 있다.

(16) 여기 집이 있지 않다.

(17) 여기 집이 없다.

(18) 여기 집이 없지 않다.

위의 (9)는 ‘유한하다’와 ‘무한하다’를 동시에 부정한 것이고, (10)은 ‘있다’와 ‘없다’를 동시에 부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성립될 수 없다. 이는 ‘유한하다’와 ‘무한하다’ 그리고 ‘있다’와 ‘없다’ 사이에 제 삼의 중

20) 정철주, 현대국어의 정도부사 연구(석사학위 논문, 1982) p.5

21) 西尾寅弥, 形容詞の意味・用法の記述的研究(東京:秀英出版, 1972) p. 155

간개념(neutral conception) 내지는 중간적 존재(neutral being)의 개념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적 속성을 논리학에서는 모순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한하다’와 ‘무한하다’ 그리고 ‘있다’와 ‘없다’ 사이에 제 삼의 중간개념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11)은 (13)의 부정인 (14)를 함의하고 (13)은 (11)의 부정인 (12)를 함의 한다. 동시에 (11)의 부정인 (12)는 (13)을 함의 하고 (13)의 부정인 (14)는 (11)을 함의한다. 즉, 이것은 한 쪽의 긍정이 다른 쪽의 부정을 함의하고 동시에 한 쪽의 부정이 다른 쪽의 긍정을 함의한다는 것이다. Lyons(1971)는 이러한 함의 관계를 상보성(complementarity)이라고 하였다.²²⁾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	b	U=A+B
(not B)	(not A)	(U : 전체집합)

(그림 7)

이상에서 제Ⅰ형 반의어는 어휘 자체에 등급을 매길 수 없다. 따라서 두 대상을 비교하는 비교표현은 성립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들을 동시에 부정하면 모순이 되기 때문에 한 쪽의 긍정이 다른 쪽의 부정을 함의하며 그 역도 성립된다.

3.2 제Ⅱ형 반의어

제Ⅱ형 반의어는 분량이나 성질의 정도가 달라서 반의관계에 놓이는 단어쌍들이다. 이것을 정인수(1985)에서는 등급 반의어라 하였고, 임지룡(1989)에서는 반의 대립이라 하였다. 여기에 속하는 예로 ‘길다/짧다’, ‘넓다/좁다’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면 ‘길다/짧다’, ‘넓다/좁다’를 통해서 이들의 의미적 특성을 살펴

22) Lyons, (1971), 전제서. p.461.

보기로 하겠다.

(19) ㄱ. 매우 길다

ㄴ. 더 길다

(20) ㄱ. 매우 짧다

ㄴ. 더 짧다

(21) ㄱ. 매우 넓다

ㄴ. 더 넓다

(22) ㄱ. 매우 좁다

ㄴ. 더 좁다

(23) 이것은 저것보다 매우(더) 길다.

(24) 이것은 저것보다 매우(더) 짧다.

(25) 이 방은 저 방보다 매우(더) 넓다.

(26) 이 방은 저 방보다 매우(더) 좁다.

위의 (19)~(22)는 ‘길다’, ‘짧다’, ‘넓다’, ‘좁다’에 각각 정도부사로 수식한 것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앞에서 논의한 제I형 반의어와 달리 어휘적으로 성립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길다’, ‘짧다’, ‘넓다’, ‘좁다’는 그 자체에 등급(grade)을 매길 수 있다. 이들이 그 자체에 등급을 매길 수 있다는 것은 의미적으로 볼 때 그들이 속하는 척도상에서 점이 아닌 폭을 가진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23)~(26)과 같은 비교표현은 성립이 가능하다.

(27) 이것은 길지도 짧지도 않다.

(28) 이 방은 넓지도 좁지도 않다.

위의 (27)은 ‘길다’와 ‘좁다’를 동시에 부정한 것이고 (28)은 ‘넓다’와 ‘좁다’를 동시에 부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제I형 반의어와 달리 성립될 수 있다. 이것은 ‘길다’와 ‘짧다’ 그리고 ‘넓다’와 ‘좁다’ 사이에 제삼의 중간개념, 즉 중간지역(midinterval)이 있음을 뜻한다. Leech(1981)

는 이런 유형의 반의어에 대해서 어느 쪽도 포함되지 않는 중간지역(midground)을 두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향한다²³⁾고 하였다.

- (29) 이것은 길다
- (30) 이것은 길지 않다
- (31) 이것은 짧다
- (32) 이것은 짧지 않다
- (33) 이 방은 넓다
- (34) 이 방은 넓지 않다
- (35) 이 방은 좁다
- (36) 이 방은 좁지 않다

‘이것이 길다’라고 말할 때는 ‘이것이 짧지 않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짧지 않다’라고 말할 때는 ‘이것은 길다’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 방은 넓다’라고 말할 때는 ‘이 방은 좁지 않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은 좁지 않다’라고 말할 때는 ‘이 방은 넓다’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27)과 (28)의 예문을 통해서 보았듯이 ‘길다’와 ‘짧다’ 그리고 ‘넓다’와 ‘좁다’ 사이에는 중간지역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9)는 (31)의 부정인 (32)를 함의하고 (31)은 (29)의 부정인 (30)을 함의하지만 (31)의 부정인 (32)는 (29)를 함의하지 않고 (29)의 부정인 (30)은 (31)을 함의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한 쪽의 긍정은 다른 쪽의 부정을 함의하나 한 쪽의 부정은 다른 쪽의 긍정을 함의하지 않는다. 논리학에서는 이런 함의 관계를 반대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제Ⅱ형 반의어는 그 자체에 등급(grade)을 매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속하는 척도상에 폭으로 그 위치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비교표현의 성립이 가능하다. 그리고 중간개념, 즉 중간지역(mid interval)이 있기 때문에 한 쪽의 긍정이 다른 쪽의 부정을 함의하나 한

23) Leech, Geoffrey, Semantics (Penguin Books, Second edition, 1981)p.99.

쪽의 부정은 다른 쪽의 긍정을 함의하지 않는다.

3.3 제Ⅲ형 반의어

제Ⅲ형 반의어는 제Ⅰ형 반의어의 일부 속성과 제Ⅱ형 반의어의 일부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형용사로 된 반의어를 말한다. Lehrer(1982)는 이것을 opposite의 특별한 부류로 언급할 가치가 있다²⁴⁾고 하였다. Cruse(1980)는 이를 gradable complementaries라 불렀고 임지룡(1989)는 정도 상보 대립어라 불렀다.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반의쌍으로 ‘깨끗하다/더럽다’, ‘건강하다/아프다’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면 ‘깨끗하다/더럽다’, ‘건강하다/아프다’를 통해서 이들의 의미적 특성을 살펴 보겠다.

- (37) ㄱ. 매우 깨끗하다.
 ㄴ. 더 깨끗하다.
- (38) ㄱ. 매우 더럽다.
 ㄴ. 더 더럽다.
- (39) ㄱ. 매우 건강하다.
 ㄴ. 더 건강하다.
- (40) ㄱ. 매우 아프다.
 ㄴ. 더 아프다.
- (41) 이 곳은 저 곳보다 더(매우) 깨끗하다.
- (42) 이 곳은 저 곳보다 더(매우) 더럽다.
- (43) 철수는 영희보다 더(매우) 건강하다.
- (44) 철수는 영희보다 더(매우) 아프다.

위의 (37)~(40)은 ‘깨끗하다’, ‘더럽다’, ‘건강하다’, ‘아프다’들에 정도부사로 수식한 경우이다. 이들은 제Ⅱ형 반의어와 같이 성립될 수 있

24) A. Lehrer & K. Lehrer(1982), 전제서, p.493.

다. 그러므로 ‘깨끗하다’, ‘더럽다’, ‘건강하다’, ‘아프다’들은 그 자체에 등급을 매길 수 있다. 따라서 두 대상을 비교하는 (41)~(44)와 같은 비교표현의 성립이 가능하다.

(45) * 이 곳은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다.

(46) * 철수는 건강하지도 아프지도 않다.

(47) 이 곳은 깨끗하다.

(48) 이 곳은 깨끗하지 않다.

(49) 이 곳은 더럽다.

(50) 이 곳은 더럽지 않다.

(51) 철수는 건강하다.

(52) 철수는 건강하지 않다.

(53) 철수는 아프다.

(54) 철수는 아프지 않다.

위의 (45)는 ‘깨끗하다’와 ‘더럽다’를 동시에 부정한 것이고, (46)은 ‘건강하다’와 ‘아프다’를 동시에 부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비유적인 표현에서는 가능할 수 있을 지 모르나 논리적인 표현에서는 성립이 불가능한 것들이다. 따라서 ‘깨끗하다’와 ‘더럽다’ 그리고 ‘건강하다’와 ‘아프다’사이에는 중간개념(neutral conception), 즉 중간지역(midinterval)의 개입이 허용될 수 없다.

‘깨끗하다’와 ‘더럽다’, 그리고 ‘건강하다’와 ‘아프다’는 제 I 형 반의어와 같이 제 삼의 중간개념, 즉 중간지역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47)은 (49)의 부정인 (50)을 함의하고, (49)는 (47)의 부정인 (48)을 함의한다. 동시에 (47)의 부정인 (48)은 (49)를 함의하고 (49)의 부정인 (50)은 (48)을 함의한다. 마찬가지로 (51)은 (53)의 부정인 (54)를 함의하고 (53)은 (51)의 부정인 (52)를 함의한다. 동시에 (51)의 부정인 (52)는 (53)을 함의하고 (53)의 부정인 (54)는 (51)을 함의한다.

이상에서 제Ⅲ형 반의어는 등급을 매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제Ⅱ형 반의

어와 그 의미적 속성을 공유한다. 그러나 동시에 부정하면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어 한 쪽의 긍정이 다른 쪽의 부정을 함의하고 한 쪽의 부정이 다른 쪽의 긍정을 함의한다는 점에서는 제 I 형 반의어와 그 의미적 속성을 공유한다.

3.4 제Ⅳ형 반의어

반의어에 대한 종래의 연구에서는 이원적 반의어(본고의 제 I 형 반의어)로 다루어 졌으나²⁵⁾, 이들의 의미적 특성으로 보아 다른 부류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속하는 반의어로 ‘같다/다르다’, ‘유익하다/무익하다’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면 ‘같다/다르다’, ‘유익하다/무익하다’를 통해서 이들의 의미적 특성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55) 가. * 아주 같다.

나. * 더 같다.

(56) 가. 아주 다르다.

나. 더 다르다.

(57) 가. * 아주 무익하다.

나. * 더 무익하다.

(58) 가. 아주 유익하다.

나. 더 유익하다.

(59) * A는 C보다 B와 아주(더) 같다.

(60) A는 C보다 B와 아주(더) 다르다.

(61) *이것은 저것보다 아주(더) 무익하다.

(62) 이것은 저것보다 아주(더) 유익하다.

위의 (55)~(58)은 ‘같다’와 ‘다르다’, 그리고 ‘무익하다’와 ‘유익하다’

25) 이석주(1975)와 정인수(1985) 참조.

에 정도부사로 수식한 것들이다. 여기서 (55)와 (57)은 성립될 수 없으나 (56)과 (58)은 성립될 수 있다. 즉, ‘같다’와 ‘무익하다’는 등급을 매길 수 없으나, ‘다르다’와 ‘유익하다’는 등급을 매길 수 있다. 따라서 (59)와 (61)과 같은 비교표현은 성립될 수 없지만 (60)과 (62)와 같은 비교표현은 성립될 수 있다. 이처럼 한 쌍의 어휘에서 한 어휘는 등급을 매길 수 있으나 나머지 한 어휘에서 등급을 매길 수 없다는 것이 앞에서 논의한 다른 유형의 반의어와 의미적 특성이 다르다고 하겠다.

(63) * A와 B는 같지도 다르지도 않다.

(64) * 이것은 유익하지도 무익하지도 않다.

(65) A와 B는 같다.

(66) A와 B는 같지 않다.

(67) A와 B는 다르다.

(68) A와 B는 다르지 않다.

(69) A는 무익하다.

(70) A는 무익하지 않다.

(71) A는 유익하다.

(72) A는 유익하지 않다.

위의 (63)은 ‘같다’와 ‘다르다’를 동시에 부정한 것이고, (64)는 ‘유익하다’와 ‘무익하다’를 동시에 부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앞에서 논의한 제Ⅰ형 반의어나 제Ⅲ형 반의어처럼 성립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같다’와 ‘다르다’ 그리고 ‘무익하다’와 ‘유익하다’ 사이에는 중간개념, 즉 중간지역의 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같다’와 ‘다르다’ 그리고 ‘무익하다’와 ‘유익하다’ 사이에 중간지역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65)는 (67)의 부정인 (68)을 함의 하고 (67)은 (65)의 부정인 (66)을 함의 한다. 동시에 (65)의 부정인 (66)은 (67)을 함의하고 (67)의 부정인 (68)은 (65)를 함의한다. 마찬가지로 (69)는 (71)의 부정인 (72)를 함의하고 (71)은 (69)의 부정인 (70)을 함

의한다. 동시에 (69)의 부정인 (70)은 (71)을 함의하고 (71)의 부정인 (72)는 (69)를 함의한다. 이러한 함의관계는 앞에서 논의한 제Ⅰ형 반의어와 제Ⅲ형 반의어와 동일하다.

이상에서 제Ⅳ형 반의어는 한 어휘가 등급적이지만 나머지 한 어휘가 비등급적임을 보았다. 이것이 앞에서 논의된 다른 유형의 반의어와 그 의미적 특성이 다르다고 하겠다. 그러나 제Ⅳ형 반의어는 중간개념, 즉 중간지역의 개입이 허용될 수 없어 동시에 부정하면 논리적으로 모순이 된다. 따라서 한 쪽의 긍정이 다른 쪽의 부정을 함의하고 한 쪽일 부정이 다른 쪽의 긍정을 함의한다. 이 점은 제Ⅰ형 반의어와 제Ⅲ형 반의어와 의미적 특성을 공유한다고 하겠다.

4. 마무리

본고에서 필자는 사전에서 형용사로 이루어진 반의어를 뽑아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관점에 규정된 개념에 비추어 이들을 검토함과 동시에 의미적 특성을 살펴 보았다.

이 결과 얻어진 본고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반의어는 양립불능관계가 있지만, 같은 상위개념에 속하는 하위개념들이기 때문에 유사점이 많은 낱말들이다. 그러므로 반의어로 성립되는 두 단어는 하나 이상의 의미 자질이 다르고 나머지 의미 자질을 공유하는 경우, 상위개념에 속하는 양립불능인 하위개념이 둘 뿐인 경우 동일한 관계에 놓이고 방향이 대립되는 경우 그리고 같은 척도(scale)서 유사한 정도의 거리와 방향이 대립되는 경우라야 한다.

2. 사전에 등재된 형용사로 이루어진 반의어들을 반의어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성립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들 가운데는 중간지역에 속하는 단어를 반의어로 잘못 다룬 경우, 중간지역에서 유사한 거리에 있지 않은 두 단어를 반의어로 잘못 다룬 경우, 그리고 제시어의 부정(negation)을 반의어로 잘못 다룬 경우들이 있었다.

3. 형용사로 이루어진 반의어는 그들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제Ⅰ형 반의어, 제Ⅱ형 반의어, 제Ⅲ형 반의어, 제Ⅳ형 반의어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제Ⅰ형 반의어는 두 어휘 모두 등급을 매길 수 없다. 그리고 이들을 동시에 부정하면 모순이 되어 중간지역이 설정될 수 없다. 따라서 한 쪽의 긍정이 다른 쪽의 부정을 함의하고, 한 쪽의 부정이 다른 쪽의 긍정을 함의한다.

2) 제Ⅱ형 반의어는 제Ⅰ형 반의어와 달리 두 어휘 모두 등급을 매길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을 동시에 부정하면 반대가 되어 중간지역이 설정될 수 있다. 따라서 한 쪽의 긍정이 다른 쪽의 부정을 함의하나 한 쪽의 부정은 다른 쪽의 긍정을 함의하지 않는다.

3) 제Ⅲ형 반의어는 두 어휘 모두 등급을 매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제Ⅱ형 반의어와 의미적 속성을 공유한다. 그러나 이들을 동시에 부정하면 모순이 되어 중간지역이 설정될 수 없다. 따라서 제Ⅰ형 반의어와 동일한 함의관계를 가진다.

4) 제Ⅳ형 반의어는 두 어휘 가운데 한 어휘가 등급적이나 나머지 한 어휘가 비등급적이라는 것이 앞에서 논의한 다른 유형의 반의어와 의미적 차이를 보인다. 제Ⅰ형 반의어나 제Ⅲ형 반의어처럼 동시에 부정하면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어 중간지역이 설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것은 제Ⅰ형 반의어 그리고 제Ⅲ형 반의어와 동일한 함의관계를 가진다.

참 고 문 헌

- 남기심 (1974), 반대어고, 국어학2.
문정복 외 (1978), 「논리학」, 대구, 형설출판사.
박종홍 (1972), 「일반논리학」, 서울, 박영사.
심재기 (1982), 「국어어휘론」, 서울, 집문당.
염선모 (1987), 「국어의미론」, 대구, 형설출판사.

- 이석주(1975), 반의어 의식에 관한 일 조사 연구, 한국 모국 국어교육
연구회 논문집9.
- 이승명(1978), 「국어 어휘의 의미 구조와 기능에 대한 연구」, 대구, 형
설출판사.
- 정인수(1985), 국어반의어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
- 정철주(1982), 현대국어의 정도부사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
- Adrienne Lehrer & Keith Lehrer(1984), Antonymy, Linguistics and
Philosophy5.
- A. knajian, Demers & Hanish(1979), 「Linguistics : An introdncion
to Language and Communication」, M.I.T.
Press.
- Cruse,D.A.(1980). Antonyms and Gradable Complementaries. In
Kastovsky, D.(ed), Perspektiven der Lexikalischen
Semantik : Beitrage zum Wuppertaler
Semantikkolloquium vom 2-3.
- Kempson, R.M.(1977). 「Semantic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ech, G.(1981), 「Semantics」2nd Edition, Penguin Books.
- Lyons,J.(1971),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 Can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1977) 「Semantics」Vol.I,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ida, E.A.(1975), 「Componential Analysis of Meaning」, Mouton
Publishers.
- Palmer, F.R.(1981), 「Seman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西尾寅弥(1972) 「形容詞の意味・用法の記述的 研究」東京, 秀英出版.